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연구*

정선희**

〈차례〉

1. 머리말
2. 〈조씨삼대록〉의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 1) 질투의 원인 - 친구의 능력과 혼인
 - 2) 질투의 과정 - 친구 살해와 친구 아내 모해
 - 3) 질투의 결과 - 몰락, 누우침, 친구의 덕행 부각
3.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정의 의의와 효과
 - 1) 미묘한 심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유도
 - 2) 서사, 인물, 공간의 확장과 흥미소로서의 효과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중 하나인 〈조씨삼대록〉의 대표적인 ‘남성 악인’ 설강이 ‘질투(嫉妬)’의 감정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주목하여 그 추이를 살피고 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였다.

‘질투’의 사전적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에 심하게 시기하는 것’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투기(妬忌)’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는 것 등을 괜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인데, 설강의 경우는 둘 다에 해당한다.

〈조씨삼대록〉은 18세기 무렵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삼대록계 국문장편 소설 중 하나로, 쌍둥이 형제인 조무와 조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심한 악행을 하는 인물이 바로 ‘설강’인데 그런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행동의 원인이 친구인, 조성의 아들 유현에 대한 질투에 있었다. 친구의 가문과 능력, 혼인에 대해 질투를 하여, 친구를 죽이려 하고 친구의 아내를 모해하였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자신만 몰락하여 벌을 받고 뉘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의 덕행이 부각되었다.

<조씨삼대록>은 이렇게 ‘질투’하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질투에 얽힌 미묘한 심리 즉, 분노와 복수심, 대항심, 선망 등을 묘사하고 인간의 본성을 표현해 내어 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였다. 또한 ‘남성 악인’이 질투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 악인이 질투할 때보다 서사와 인물, 공간이 공적(公的)으로 확장되고 여러 가지 흥미요소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작품의 재미를 더하였다. 또 형제나 누이를 질투할 때에는 가문 내의 문제나 갈등이 더 부각되는 반면, 친구를 질투할 때에는 갈등이 사회적인 부분으로 확대되기에 감정의 면에서나 서사 기법 면에서 다른 의의와 효과가 있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 질투, 감정, 남성 악인

1. 머리말

본고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중 하나인 <조씨삼대록>의 대표적인 ‘남성 악인’ 설강이 ‘질투’의 감정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주목하여 그 추이를 살피고 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질투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곤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질투하는 남성이 등장하고 그 질투 때문에 제법 길게 지속적으로 심한 악행을 저지르기에 주목할 만하다. <창선감의록>의 화춘, <유효공선행록>의 유흥처럼 형제를 질투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있지만, 이 작품처럼 친구를 질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작품의 전편(前篇)인 <현몽쌍룡기>에는 여동생을 질투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양세라는 인물이 있어 설강과 비교되는 면이 있다. 형제나 누이를 질

투할 때에는 가문 내의 문제나 갈등이 더 부각되는 반면 친구를 질투할 때에는 갈등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부분으로 확대되기에 감정의 면에서나 서사 기법 면에서 다른 의의와 효과가 있다.

‘질투(嫉妬)’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에 심하게 시기하는 것’¹⁾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보통 ‘투기(妬忌)’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남성 인물에게는 투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질투의 또 하나의 정의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는 것 등을 괜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²⁾인데, 설강의 경우는 전자, 후자 둘 다에 해당한다.

‘질투’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의미소로 규정된다. 애착 관계(강렬하면서도 의심을 품은 애착관계), 나쁜 느낌(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을 보며 느끼는 나쁜 감정), 불안(공유해야 하는 두려움이 불러일으키는 불안), 고통스러운 느낌(불안한 사랑의 강요, 사랑 받는 사람에 대한 독점적 소유의 욕망, 의심이나 확신을 느끼는 사람에게 일으키는 괴로운 감정)이 그것이다.³⁾ 그런데 이들은 또 애착관계와 경쟁관계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친구 사이의 질투도 이러한 애착과 경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강화되는 감정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는 주로 여성들에게 ‘투기’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전적으로는 질투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투기는 질투와 시샘을 야기하는 성품과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질투와 투기를 모두 여성의 특질로 이해하면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도 이러한 면을 받아들여 투기를 여성의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3) 홍정표, 『‘질투’에 관해서 - 정념의 기호학』, 『불어불문학연구』 39, 한국불어불문학회, 1999. 263~289쪽.

전유물로 고정하여 한 남성을 두고 상대 여성을 질투한 여성의 감정과 행위를 투기라고 불렀다. 소설 이외의 조선 시대 자료에서는 남성의 시기와 질투도 투기라고 표현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⁴⁾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여성의 질투는 주로 투기라고 일컬어지며 원망, 자탄, 슬픔과 섞여 분노로 표출되곤 하는데, <소현성록>의 화부인, <소씨삼대록>의 명현공주, <유씨삼대록>의 유옥영 등이 그러한 예이다.⁵⁾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질투에 얽힌 서사나 감정과 다른 점들을 보이는 것이 남성 악인 설장의 질투에 얽힌 서사와 감정이다.

‘질투’라는 감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갈등 요소이다. 한중일의 고전문학 속에서 보이는 여성의 질투는 자기수렴형, 자타수렴형, 자기발산형, 자타발산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의 몇 편의 설화들, <사씨남정기>, 중국과 일본의 몇 편의 설화와 소설들에서 그런 인물들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대개는 질투를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을 통제하여 봉건제도의 가부장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결과라고 분석된다.⁶⁾

서양문학에서는 라신의 <바자제>, 셰익스피어의 <오텔로>, 메리메의 <카르멘> 등의 작품에서 ‘질투’의 감정을 읽거나⁷⁾, 줄라의 <사랑의 한 페이지>에서의 질투의 감정을 기호학적으로 분석⁸⁾하기도 하였다. 특히

4) 정혜경, 『투기 문화의 생산과 유통 채널, 한글장편소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6. 231~232쪽. 227~268쪽.

5) 정혜경(2017), 앞의 논문, 233~234쪽.

6)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 41, 대한중국학회, 2012. 4. 53~80쪽.

7) 송민숙, 『<바자제>, <오텔로>, <카르멘>에 나타난 질투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86, 한국불어불문학학회, 2011. 131~153쪽.

8) 유기환, 『<사랑의 한 페이지>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45,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12. 2. 229~251쪽.

이야고의 시기심이 오텔로가 아내 데스테모나를 의심하고 질투하게 하여 결국에는 오텔로가 아내를 살해하고 파멸하기에 이르는 내용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악처가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를 의심하게 하여 내쫓거나 죽이려 하는 것과 유사하다. 질투의 삼각관계, 질투의 자기파멸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줄라의 <사랑의 한 페이지>는 19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질투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 경쟁자라는 삼각구도 하에, 애착과 경쟁이 뒤엉키는 질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한국 소설 <귀의 성>에 나타난 질투와 시기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가 재생산되는 면을 고찰하거나⁹⁾, 김동인의 <감자>, 김동리의 <황토기> 등에서 질투로 인한 비극적 결말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¹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씨삼대록>은 18세기 무렵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며,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초기 유형인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이다. 전편인 <현몽쌍룡기>는 쌍둥이 형제인 조무와 조성의 이야기이고, 후편인 <조씨삼대록>은 조무와 조성의 자녀와 손자 세대로 이야기를 확대하여 부부갈등, 고부갈등, 형제갈등 등이 펼쳐지며 40권 40책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에서 통속적이고 오락적인 흥미를 느끼게 하는 대중적 독서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서사기법에 대한 연구¹¹⁾가 꽤 이루어졌다.

9) 김종욱, 「<귀의 성>에 나타난 질투와 시기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화회, 2007. 4, 187~208쪽.

10) 홍정표, 『정념기호화-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187~246쪽.

11)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7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문희,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웃음의 서사미학」,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167~204쪽. ; 송혜란,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악행이나 악인에 대한 연구¹²⁾도 몇 편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성 악인’의 ‘질투심’에 기인한 악행과 관련한 인물론적 성격의 연구는 없었기에¹³⁾ 이를 살핀 뒤 다른 남성 악인들의 형제 질투나 여성 악인의 적국 질투와 다른 점들을 짚어 볼 것이다.

설강은 <조씨삼대록>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극악한 악행을 하는 인물인데, 그 원인은 ‘질투’에 있다. 그 질투의 원인, 과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미묘한 심리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서사와 공간의 확장 등 장편소설의 흥미소로 기능하는 면도 알 수 있을 듯하다.

2. <조씨삼대록>의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1) 질투의 원인 - 친구의 능력과 혼인

설강은 친구 유현을 질투하기에 그에게 그 아내 정소저를 모함하여 부부의 의가 상하게 한다. 정소저를 남몰래 사모했었기에 그녀가 유현의 아내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질투하는 대상은 친구이지만, 그 화살은 그와 혼인하는 여성에게 갔고 그녀를 망치려는 계략은 그녀의 정절을 의심하게 하는 쪽으로 실행된다.

12)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389~419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애육추구형 악인의 삼각형의 욕망 구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387~418쪽. ;한길연, 「영웅소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14, 479~508쪽.

13) 이 작품의 전편인 <현몽쌍룡기>에도 질투하는 남성 악인 ‘양세’의 모습이 흥미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양세는 여동생을 질투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이 더욱 주목되므로 이를 분석하는 후고를 준비하고 있기에 함께 다루지 않는다.

설강은 정씨 집안 처가 쪽 친척인데, 1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고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며 임금도 총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친구를 질투하지만 앓았다면 순탄하게 살 수도 있었을 인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현의 아내가 될 정소저를 사모했고 그녀가 혼인하게 되는 유현을 질투하게 되어 악행을 저지르고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설강이 정소저가 조씨 집안과 정혼한 것을 알고 매우 놀라고 분해하며 말하였다.

“정공이 나를 나무라고 짐승 같은 조가 놈을 얻으려고 하니 이것은 권문세가를 탐하는 것이다. 내가 결단코 정소저가 조가와도 살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¹⁴⁾

정소저의 아버지가 유현이 권문세가의 자식이기에 사위로 선택했다고 생각한 설강은 분노가 치미는데, 설강은 재주와 용모는 뛰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가문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 유현보다 떨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

또 설강은 질투하게 되는 성격적 요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호방하고 의협심 많은 탕자’, ‘사람됨이 간사하고 색(色)에 굶주린 귀신과 같았다’라는 어구들이 종종 보인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어리석고 짓대가 없었기에’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 나빠진 것으로 되어 있다.

설강이 정소저를 사모하던 마음을 어머니 범씨에게 말하여 정소저의 어머니 설부인에게 청혼하지만 이미 정소저는 조씨 집안과 정혼했기에 성사되지 못한다.¹⁵⁾ 그리하여 사모하던 여인을 뺏어간, 즉 그녀의 애인을 질투하는 전형적인 삼각구도가 생긴다. 여성과 사랑을 나눌 것을 기대했

14) <조씨삼대록> 1권 74~75쪽.

15) <조씨삼대록> 1권 73~74쪽.

지만 그것이 깨지자 실망이 생기고 불만족과 공격성이 생기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그 경쟁 대상인 유현이 친구이고 똑같이 재능이 있는데다가 자신은 갖지 못한 명문가문이라는 점,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갖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시기심까지 더하여져 정소저와 유현을 모두 공격하게 된다.

설강은 정소저를 볼 때마다 그 모습에 반하여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샘솟는다. 정소저가 조성과 정혼한 것을 알면서도 소저의 어머니 설부인에게 조씨 가문을 헐뜯으면서 그 혼인을 물리면 좋겠다고 설득한다. 아울러 조씨 집안을 왕래하면서 유현, 기현과 사귀기도 하는데 그들은 총명하여 설강의 소인스러움을 알기에 마음을 열어 대접하지는 않고 겉으로만 대접한다. 이에 설강은 그들이 박정하다고 하면서 친애하는 거동을 보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말을 하여 환심을 사려 한다.

설강은 유현에게 계속하여 친밀함을 말하면서 형제의 정을 맺는다고 했지만 안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서 유현의 앞길을 막으려 하고 정소저와 화락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밤낮으로 모색한다. 유현은 설강의 ‘도(道)가 없음과 말의 경박함을 가소롭게 여기지만’ 그의 속마음과 의도를 헤아리지는 못한다.¹⁶⁾

이때 설강은 한림원에서 유현이 과거에 급제하여 다니게 되자 예전에 서로를 알아주던 두터운 정과 같은 직위에 있는 친밀함을 말하며 겉으로는 형제의 정을 맺었다. 하지만 안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서 유현의 앞길을 망치게 하고 정소저와 화락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밤낮으로 꾀하였다.¹⁷⁾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만 겉으로는 의리 있는 친구인 것처럼

16) <조씨삼대록> 1권 85~87쪽.

17) <조씨삼대록> 2권 48쪽.

럼 대하던 설강이 가문이나 외모는 유현에게 뒤지더라도 능력으로라도 이기려고 마음먹지만, 능력도 못 미침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현과 설강이 임금님 앞에서 시 쓰기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뛰어난 재주를 지닌 유현이 이긴 것이다. 이 대결에서 유현이 이기는 바람에 조증의 딸과 사혼하라는 상까지 받는 것을 보고 설강은 당황하고 기분 나빠한다. 비단과 명월주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야 안색이 약간 편해지는 것을 보고 임금도 이제는 설강의 인품이 얕음을 알게 된다.¹⁸⁾

한림 설강이 처를 얻었으나 그 처가 범상하니 설강은 한이 깊었다. 자기는 먼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한림원을 떠나지 못했는데 기현 형제는 춘경(春卿)과 조정에 나아가고, 겸하여 임금이 숙녀를 내려주어 쌍쌍이 복을 돌우니, 스스로 이를 갈며 어금니를 깨물었다.¹⁹⁾

설강은 혼인한 아내도 못마땅하고 자신의 관직도 불만족스럽다. 기현, 유현은 춘경 즉 예부상서에까지 올랐지만 자기는 관직이 그대로였기에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2) 질투의 과정 - 친구 살해와 친구 아내 모해

설강은 이제 경후번이라는 자객을 매수하여 유현을 죽이라고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유현이 미리 알아차리고 쫓아오는 바람에 실패한다. 그러자 이제는 정씨가 쓴 것으로 꾸민 거짓 편지를 떨어뜨리고 나와 정씨를 오해하게 만든다. 정씨가 결혼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니 남편 유현과 시아버지 초공을 죽여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초공은 영험하여 이것이

18) <조씨삼대록> 2권 49~53쪽.

19) <조씨삼대록> 3권 96~97쪽.

가짜 편지인 줄 알아차리고 그냥 태워버리라 한다. 아버지의 말에 유현도 정씨를 의심하지 않는다.²⁰⁾

설강이 유현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 떠보지만 유현은 밝음과 슬기가 있기에, 설강의 비루하고 저열한 언사와 간악한 의사가 눈에 보여 그를 믿지 않는다. 그래도 설강은 자신과 유현의 친분을 말하면서 왜 정씨의 악행을 숨기냐고 하고는 돌아간다. 이제 정씨의 진실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유현은 정씨를 유심히 살피지만 그녀의 어질고 청정함에 의심을 또 접는다.²¹⁾

설강은 정씨 모해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관직마저 유현에게 뒤지니 이것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서 외관직(外官職)으로 나가려 한다. 그러면서 정씨의 변고를 말하고 다니니 유현은 설강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를 들은 정씨의 오빠 정학시는 설강이 예전에 정소저와 혼인하고 싶다고 청혼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유현을 죽이려 한 자객도 설강이 보냈을 거라고 말해준다. 그 말을 듣고도 유현은 설강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장인어른께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설강이 길을 잘못 든 것이 애달프다면서 깨우쳐 알게 하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씨가 누명을 쓴 것임을 알게 된다.²²⁾

‘유현은 밝음이 해와 달 같고 신이하고 능통한 것이 귀신과 같으니 사악한 계책으로 혼란스럽게 할 바가 아니다. 끝내 정씨를 무사히 두고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다시 경후변을 보내어 유현을 죽이고자 하지만 유현이 임금을 섬기고 임무를 살피는 데 모든 일에 숙연하다. 청렴하고 공손하며 삼가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풍모이고 상쾌하고 활달하며 시윈스럽게 처리하는 것은 그 숙부의

20) <조씨삼대록> 3권 97~108쪽.

21) <조씨삼대록> 4권 1~2쪽.

22) <조씨삼대록> 4권 8~16쪽.

재주이다. 더불어 서리 같은 기질이 일세를 압도하고 밝은 해 같은 총명을 지니고 있어서 무리 중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위로 임금의 총애는 조정과 재야를 기울일 정도이고 아래로 온 조정의 대신은 눈을 낮추고 귀하게 대우한다.’

설강은 유현을 해칠 틈이 없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여 유현을 죽이고 정씨를 자기의 기물로 삼지 못하는 것을 우울해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다.²³⁾

설강은 정씨를 모해해도 유현이 움직이지 않으니 분하게 생각하면서, 유현이 그 아버지의 품모와 그 숙부의 재주를 본받았고 서리 같은 기질과 해 같은 총명함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 임금도 총애하고 조정의 대신들도 귀하게 대우하는 것까지 생각하니 ‘우울하고 즐겁지가 않다.’ 질투로 시작한 모해가 잘 먹혀들지 않으니 더욱 의기소침하게 된다.

계속되는 모해로 결국 정씨가 시가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오자, 설강은 정씨의 어머니 설부인을 찾아가 자신과 딸을 혼인시켰다면 이런 일 없이 정씨와 화락하며 잘 지냈을 거라고 한다. 숙모가 자기를 나무라면서 유현을 사위로 삼았지만 외모가 잘생긴 것만 유현이 더할 뿐 정소저를 아끼는 것은 자기라고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촌인 정한림 등이 설강의 본심을 알고 냉대하자 그는 계속 분해하면서 유현을 해칠 마음을 키운다.

혼자의 계략으로는 잘되지 않자 이제는 임금의 마음을 흔들 작정을 하는데, 난교라는 여자를 궁궐로 들여보내 임금의 사랑을 받게 하면서 거짓을 말하여 유현을 싫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설강이 유현에게 이를 갈며 그의 일생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임금은 유현을 공경하고 온 조정대신들도 추앙하니 틈을 탈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이다. 생각대로 임금이 난교에게 빠져들었고 더군다나 난교가 설강이 준 약을 술에 타서 먹이는 바람에 임금의 마음은 바뀌어 초공 형제와 유현에 대한 총애가 급격히 줄어든다.²⁴⁾

23) <조씨삼대록> 4권 94~95쪽.

유현은 임금이 정궁(正宮)을 소원하게 대하여 덕을 잃으시는 것이라고 직언하는 반면, 설강은 임금을 두둔하면서 정궁이 교화를 널리 퍼지 못해 내조를 잘 못한 탓이라고 하는 등 감언이설로 마음을 산다. 기현까지 가세하여 설강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자 설강은 더욱 분노하여 유현을 없애려 한다. 이런 모습을 서술자는 ‘설강의 품채 있는 모습과 유현의 기상이 하늘과 땅 사이처럼 현격하게 다르니 대인군자와 소인의 간사한 꾀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임금이 유현을 칭찬하자 유현은 자신이 설강과 친구이지만 그가 말을 잘못 아뢰었기에 이를 반박한 것이지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며 마무리한다. 이에 설강은 ‘분노를 머금고’ 물러나지만 더욱 다급한 마음이 되어 유현을 없애고 정씨를 빼앗고자 한다.²⁵⁾

유현과 기현이 태학사가 되는 등 승승장구함과 동시에, 설강도 임금의 총애를 입어 이부시랑에 이른다. 그런데도 설강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없애고 당대에 홀로 득세하고자’²⁶⁾하기에 악행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 임금이 난교와 자는 밤에 미리 난교와 짜놓은 상태에서 설강은 개면단(改面丹)을 먹고 유현의 얼굴이 되어 난교와 정을 나누는 사이였던 것으로 연극을 한다. 임금이 난교를 뺏어간 격이니 원통하여 임금을 범하겠다고는 말을 하고는 달아나는 것을 안 임금은 유현에게 화가 나 죽이려고 하게 된다.²⁷⁾

마음이 변한 임금은 초공과 진왕을 먼저 변방으로 보낸 뒤, 유현의 죄를 다스리려 한다. 이런 분위기를 타 설강은 사촌형 최학수를 동원하여 유현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不忠)한 무리라고 상소를 올리게 하여

24) <조씨삼대록> 5권 116~118쪽.

25) <조씨삼대록> 6권 1~5쪽.

26) <조씨삼대록> 6권 33쪽.

27) <조씨삼대록> 6권 33~38쪽.

임금의 마음을 또 혼든다. 유현을 죽이려고 하던 임금이 상소를 보고 분기(憤氣)가 탕천하는데, 황후인 소후가 의아해 하며 초공의 거룩함, 그 아들인 유현의 덕성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밝게 살피라고 권한다. 이에 약간 누그러진 임금이 유현을 심문하는데, 유현은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웃음을 머금고 있는 반면, 설강과 최학수는 얼굴이 붉은 빛으로 달아오르고 옷에 땀이 젖는다. 여기서도 대조적인 인품을 알 수 있다.

평진후 소천 등 대신들이 개면단의 존재를 환기시키면서 임금이 속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모두들 유현이 애매하게 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살피라고 간하지만, 임금은 유현을 하옥한다.²⁸⁾ 유현은 설강이 재주와 용모가 빼어난데도 행실이 그에 못 미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설강에게 온화하게 말하며 마음을 바꾸라고 한다. 그러자 설강은 자기가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 친구의 정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지만, 귀양 가는 유현을 죽이려고 자객 석환을 보내는 등 속마음을 바꾸지는 않는다.

3) 질투의 결과 - 몰락, 뉘우침, 친구의 덕행 부각

유현을 죽이려 하는 설강과는 달리 주변인들 즉 채관 손덕수 등이 유현에게 감화되어 그를 돕는 바람에 설강의 계획은 잘 실행되지 않는다. 석환이 손덕수와 공모하지 못한 채 유현을 죽이려 시도하지만 유현이 예측하고 대기했다가 석환을 잡는다. 손덕수가 이런 상황을 임금께 말하니 설강은 매우 당황하고, 유현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이제는 탄식하고 부끄러워한다. 운남으로 가는 인편에 유현에게 답장을 보내어 사죄하기도 한다.²⁹⁾

이런 상황에서 궁궐에 있던 난교는 4년이나 되었지만 이렇다 할 직책도 얻지 못하고 임금의 총애도 약해지는 듯하니, 예전에 설강이 주었던 약을

28) <조씨삼대록> 6권 82~90쪽.

29) <조씨삼대록> 8권 56~61쪽, 8권 100~111쪽.

정궁 소후의 음식에 넣어 죽이려 한다. 하지만 이 일이 실패하고, 요괴 형상의 목인(木人)을 만들어 왕후의 침실 주변에 묻으려다 상궁에게 발각되어 임금께 문책 당하여 설강과 모의했던 그간의 죄를 다 밝히게 된다.³⁰⁾

임금 앞에서 심문을 받던 설강은 악행을 그만두려던 유현의 말을 떠올리며 후회도 하고 당황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자백한다. 자기가 ‘사람에 대한 시기를 지나치게 하여’ 유현과 정씨 사이를 훼방 놓은 것이라면서 유현을 귀양 가게 한 것도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유현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글로써 가르치니 이에 감동하여 미리 자백하려 했지만 황공하고 떨려서 못 하고 있었다고 한다. 화가 난 임금이 엄하게 꾸중하면서 태형(笞刑)을 가하니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곁에 있던 초공과 기현이 설강을 용서하시라고 간곡히 아뢰 뒤애야 매질이 중단된다.³¹⁾

모든 죄상이 밝혀진 뒤, 유현을 귀양지에서 소환하고 난고는 목을 베어 죽이고 설강은 사형에 처하라는 교지가 내려지지만, 설강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초공이 극구 말리므로 감옥에 가두기만 한다. 초공의 도움으로 설강의 어머니 범씨가 상소문을 올리고 등문고를 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고, 운남의 군졸로 보내게 된다.³²⁾

이후의 설강의 행적은 유현의 선행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 유현이 잘못을 뉘우치는 설강을 위로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형벌 받은 자리를 치료해 주고 먹을 음식도 넉넉히 준다. 같이 자면서까지 간호해주시니 설강은 감격하고 슬퍼하면서 사죄한다. 유현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계책을 모의하던 사람을 이렇게 대하니 설강은 ‘나를 구해준 사람은 어진 형’이라면서 고마워한다.

30) <조씨삼대록> 9권 108~110쪽.

31) <조씨삼대록> 9권 110~121쪽.

32) <조씨삼대록> 10권 26~30쪽.

유현은 설강이 귀양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재화와 비단 같은 것을 주고, 그 곳의 태수와 자사에게 서찰을 보내 설강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강은 천벌을 받기라도 하는 듯 괴이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쌀도 잃어버리고 요괴 무리가 왕래하며 그 아내를 몰아가 버리기도 하고 노복들도 다 흩어져 버리는 등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설강은 고단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 한다. 흥측한 귀신 줄개들이 공중에서 내려와 설강을 흔들며 “악인이 죽을죄를 벗어나 살아 있으니 모든 신들이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에게 너를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먼저 너의 목숨을 끊고 너의 처를 앗아갈 것이다.”³³⁾라고 하고는 물어뜯기도 한다. 설강이 피를 흘리며 기절하여 넘어진 사이에 아내 손씨를 몰고 달아나버린다. 나중에 깨어나서 이를 알았지만 어찌할 수 없어 통곡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더욱 사는 게 힘들어져서 직접 나무와 물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 고생스럽게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유현이 와서 귀졸을 무찌르고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 주고, 귀졸들에게서 손씨도 다시 뺏어 데려오고, 다시는 이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부적을 써준다. 설강을 유배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 유현은 전장에 그를 데리고 가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이 일을 왕에게 아뢰어 설강을 용서하게 한다.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이렇게까지 대하는 유현의 덕성을 보여주는 결말이다.

설강의 질투로 시작된 악행은 이렇게 끝나게 된다. 심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귀하게 자라고 학식과 재주, 용모도 뛰어났던 그가 몰락하게 된 것은 유현에 대한 질투라는 감정 때문이었다.

33) <조씨삼대록> 25권 82~83쪽.

3.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정의 의의와 효과

1) 미묘한 심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유도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설강은 친구 유현의 능력과 가문의 훌륭한 때문에 질투를 시작한다. 이후,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여성인 정소저가 유현과 혼인하는 것을 알고는 질투가 더 커진다. 그래서 유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정소저를 모해하여 둘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려 한다. 악인들과 연대하기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귀양 가는 신세가 된다. 그곳에서도 천벌을 받는 것인지 귀족들에게 당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친구 유현이다. 유현은 설강을 전혀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를 간호하고 돕는다. 귀양살이를 멈추게 하려고 전장으로 데리고 나가 공을 세우게까지 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귀양은 끝나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유현의 은혜로움과 성품은 매우 돋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는’ 남성 악인을 봄으로써 독자들은 인간의 미묘한 심리와 본성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특히 작품 곳곳에서 그와 그 주변인들의 심리에 대해 서술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친구 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생생하게 대할 수 있다.

설강은 유현을 질투하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살갑게 대하거나 위하는 척하고, 유현도 설강의 인품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그 앞에서 밀어내지는 못하고 천연스럽게 대한다. 하지만 유현이 ‘설강의 사람됨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다시 묻지 않았다’거나 ‘어찌 설강의 공교로운 꾀를 생각했겠는가?’, ‘설강의 성미를 알기 때문에 그 위인을 비록 믿지 않았지만 이 말조차 어찌 믿지 않겠는가?’라는 서술을 통해 유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놓았다.

반대로 설강은 '겉으로 형제의 정을 맺었지만 안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서 유현의 앞길을 마치게 하고 정씨와 화락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늘 어전에서 일생의 재주와 학식을 기울여 조생을 이기리라', '이를 갈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거짓으로 슬퍼하는 얼굴로'라는 서술을 통해, 권모술수에 능하고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놓았다. 유현에게는 너를 하루만 못 봐도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면 살갑게 대하면서 정소저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떠본 뒤 소저가 자기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고자 했으니 음란하다고 모함하는 식이다.

유현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것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 설강이 정소저를 모해할 때에 그녀를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장면, 임금이 설강의 간계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면 등에서 그러하다. 임금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최학수와 설강에게 제차 물을 때에 설강은 궁녀에게 들은 바를 최학수에게 말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이를 들은 유현은 자신은 설강과 친하지만 지기지우(知己之友)는 아니기에 마음을 열어 말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허물과 일을 자세히 알았냐고 묻는다.

설강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도 많은데, 모든 것이 드러나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슬퍼하며 후회하는 장면³⁴⁾, 유현이 마음을 착하게 가지라고 권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는 장면³⁵⁾ 등이 그것이다.

34)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슬프고 후회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났다. 장형을 맞고 위태로운 여생이 초교(草橋)에 실리어 노모와 처자를 앞에 신고 만 리 밖의 한없이 먼 길을 떠나니 돌아올 기약이 영영 끊어지고 일세에 더러운 이름과 천고에도 없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어 만 리나 되는 앞길을 아주 끊고 스무 살 소년이 공부한 공명이 그림의 떡이 된 것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니 아홉 구비 창자가 일시에 끊어져 설강이 길게 한 소리를 지르고 말에서 떨어졌다. 형색은 숨이 끊어질 듯하고 기운이 막히니 채관 등이 설강을 주물러 구하였다. <조씨삼대록> 10권 48~49쪽.

35) 설강이 편지를 다 보고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말을 못하였다. 유현의 편지 속의 말이

설강이 어릴 때부터 부귀하게 자라고 홀어머니의 외동아들로 천금 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입신양명하여 부귀가 대단하고 호화로우며 사치스럽게 지낸 사람으로 태형의 아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서술, 유현이 설강을 용서하면서 당신이 잘못을 뉘우쳤으니 감동한다, 당신의 재주를 준 하늘이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니 마음의 수양을 하라는 서술, 이를 들은 설강이 감격하여 은혜가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는 장면 등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 심정에 공감하게 한다.

‘질투’라는 감정은 종종 분노와 복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설강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는 좋은 용모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에 1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고 임금도 총애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이를 수 있을 줄 알았고 빼어난 아내를 얻을 줄 알았다. 즉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문의 후광이 없어서인지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빼어난 아내도 얻지 못하여 ‘불만’이 생겼다. 이 불만은 ‘공격성’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와 분노’의 감정 표출로 이어진다.³⁶⁾ 복수와 분노의 감정 표출은 유현에 대한 공격으로 실행되는데 그의 이익이나 유리한 조건을 빼앗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질투의 감정은 경쟁관계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는 ‘대항심’, ‘선망’, ‘시기심’ 등을 낳는다. 대항심은 어떤 사람과 장점, 지식, 일에 있어 동등하려 하거나 그를 능가하려는 감정이고, 선망은 다른 사람의 것과 동등한 이점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구이고, 시기심은 의혹의 감정이나 어떤 사

자기가 전후에 저질렀던 악한 일을 따라다니며 본 듯하여 심신이 놀랍고 실로 장래를 헤아리니 두렵고 위태하였다. 두 번 자객을 보내어 인명을 해치려고 했던 흉한 마음을 세상이 안다면 어찌 선비의 무리에 들어가 사람을 대하겠는가? 안색이 기운을 잃어 붉으락푸르락하였다. <조씨삼대록> 8권 106~107쪽.

36) ‘분노’를 낳는 과정은 대개, ‘실망감-불만족-공격성’의 연속적인 시퀀스로 이어진다고 한다. 홍정표(2014), 앞의 책, 2014. 57쪽.

람에 압도되어 그들에 묻혀 있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정이다.³⁷⁾ 친구 유현에게 느끼는 설강의 감정이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 이것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설강이 악인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본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남을 모해하고 시기하여 악행을 저지른다면 결국에는 자신만 파멸할 뿐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면이 더욱 강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2) 서사, 인물, 공간의 확장과 흥미소로서의 효과

이 작품에서는 '질투'를 '남성' 인물도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그려냄으로써 서사와 인물,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흥미도 높아질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여성 악인들도 질투를 하여 선한 여성들을 모해하는 등 극악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남성 악인이 설정됨으로써 다방면에서 서사가 확장될 수 있었다.

질투는 삼각관계의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³⁸⁾, 설강의 경우에도 경쟁자 유현, 혼인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소저 사이에 질투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이 유발하는 악행이 질투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인물과 공간을 공적(公的)인 쪽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남성이기에 관료가 될 수 있었고 임금과 대면할 기회가 많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난교라는 여성을 궁녀로 들여보내 후궁이 되게 하고 그녀에게 단약을 주어 임금에게 먹이게 했다.

보통 악녀들은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³⁹⁾ 설강은 그 범주를 넓혀

37) 홍정표(1999), 앞의 논문, 1999. 267쪽.

38) 김민정, 앞의 논문, 2015. 207~208쪽.

궁궐, 임금에게 나아간 것이다. 또 단약을 먹어 혼미해진 임금이 충신 유현을 못마땅해 하다가 유배를 보내는 부분, 유배지에 있던 설강을 이제는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자고 논란하는 부분⁴⁰⁾ 등에서 여러 대신들이 나와 이에 대한 열띤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남성의 공적인 자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했으리라 생각된다.

또 설강의 귀양살이를 끝낼 빌미로 유현과 설강이 동원된 전쟁 장면이 제시되는데, 장편가문소설에서 전쟁 장면은 주로 선한 인물의 능력 발휘나 악한 인물의 빌미 제공 등을 위해 짧게 활용되는 것에 비해, 제법 길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점이 다르다. 이것도 설강이 ‘남성 악인’이었기에 가능했다. 유현은 운남국과 싸우면서 여러 장수들을 기용하는데 그 중 하나로 설강을 장수로 배치하여 큰 성과를 거둔다. 말 달리고 활을 쏘는 등 싸움 능력뿐 아니라 기백 있게 외치면서 적장을 제압하는 면까지 보여주며 설강을 돋보이게 한다.⁴¹⁾ 이후에 설강은 기주 안남사로 기용되어 흉년에

39) 여성 악인들은 주로 가문 내에서 적국과 애정 다툼을 벌이거나 음욕을 표출한다. 즉 사적인 공간에서의 음모가 두드러진다. 처벌의 면에서도 악인 여성들은 주로 가문에서 쫓겨나가거나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강이 공적인 공간에서 악행을 저지르며 그것이 처벌되는 강도가 약하고 교화되는 면과 비교된다.

40) 황상이 군정사가 공로를 장부에 기록한 것을 보셨는데 설강의 공이 예사롭지 않았다. 즉시 조유현에게는 전임 벼슬에 번국공을 더하시고, 아울러 설강의 죄를 용서하시어 공으로써 죄를 대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태사와 소승상이 오히려 설강을 용서할 수 없다고 논쟁하니 초공이 비로소 아뢰었다. “설강의 죄가 무거우나 구태여 목을 베는 것이 속 시원한 일이 아니요, 인군에게 살생을 권하는 것은 실로 신하가 할 일이 아니었으므로 죽을죄를 범한 설강을 죽이지 않고 남해에 적거하게 한 지 8,9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고쳤다고 하니 군부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마땅하며 더욱이 공을 살피지 않으면 상벌(賞罰)이 공변되게 행해지겠습니까? 두 사람의 말은 너그러운 사람의 덕이 아닌가 하옵니다.” 황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상부의 말을 들으니 짐의 마음이 얼음 녹듯 하오. 실로 정태사와 소승상의 의논이 또한 국가의 체면으로는 당연하나 이미 세월이 오래되었고 공으로 죄를 갚는 것은 국가의 예사이니 설강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소?” <조씨삼대록> 26권 65~66쪽.

41) 산 위에서 날아온 병기들이 빗발같이 운남국 군사들을 쫓았으니 획득한 무기과 군수품을 쌓아놓은 것이 셀 수 없었다. 사료잡은 장수와 군사가 많이 행복하여 크게 이기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공부상서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한다.

물론 선인이 훌륭한 인품을 지녔기에 그럴 수 있었지만, 선인과 악인이 함께 전장에서 싸우며 손발을 맞추고 승리하여 기뻐하고 헤어짐을 슬퍼하기도 하는 등 우정을 확인하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듯하다. 자신을 질투하는 친구, 자기가 질투하는 친구가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의기투합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고 화해하고 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현이 설강을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설강은 유현에게 자기의 마음이 쇠붙이나 돌이 아닌 이상 어찌 감동하지 않겠냐면서 고마워한다. 설강이 아무리 친구인 척해도 확실하게 마음을 열지는 않던 유현이 설강을 친구로 인정하였고, 설강도 질투나 미움을 버리고 고마운 친구로 생각하여 의지하고 존경하게 된 것을 자세히 서술해 놓아⁴²⁾ 공감하게 하였다.

고 설강이 윤남국왕을 회곡까지 쫓아갔는데 유현이 궁지에 몰린 도적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고 군대를 돌이켜 돌아왔다. 설강의 공이 여러 장수 가운데 으뜸이었는데 이는 유현이 짐짓 신기한 수단을 발휘하여 적군이 돌아갈 길을 짐작해서 설강으로 하여금 큰 공을 세우게 한 것이다. 이날 밤에 설강이 돌아와 얻은 무기와 군수품을 드리고 사로잡은 장수와 군사를 드리니 유현이 기뻐하며 공로를 군대의 장부에 기록하였다. (중략) 이때, 유현이 윤남국왕을 놓아 보내고 가만히 설강에게 칠기군 삼천 명을 주어 윤남국 병사의 모양을 하고 밤에 윤남성으로 가서 이리이리 하여 윤남국왕의 왕자와 왕후를 잡아오라고 하고 선봉장 석성에게는 일만 정예군을 거느리고 윤남국왕이 윤남성에 미처 못갔을 때 윤남성을 빼앗고 백성을 안무하라고 하였다. 과연 두 장수가 유현의 명을 듣고 먼저 설강이 윤남국 병사의 복색으로 윤남성의 아래로 가서 외쳤다. (중략) 수문장이 자기편 군사인 줄 알고 즉시 문을 여니 설강이 사면에 불을 놓고 궁중에 들어가 왕자며 왕후를 다 잡아 송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그러고 나서 윤남성의 네 문을 굳게 지키고 백성을 안무하며 추호도 범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칭송하고 탄복하였다.<조씨삼대록> 25권 111쪽 ~ 26권 2쪽.

42) <조씨삼대록> 29권 66~69쪽, 35권 81~83쪽, 37권 23~31쪽.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조씨삼대록>의 대표적인 ‘남성 악인’ 설강이 ‘질투(嫉妬)’의 감정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주목하여 그 추이를 살피고 이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였다.

‘질투’의 두 가지 정의 즉,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심하게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는 것 따위를 괜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 모두에 해당하는 감정을 느낀 것이 ‘설강’이었다.

<조씨삼대록>은 18세기 무렵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인데 이 작품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극악한 악행을 하는 인물이 바로 ‘설강’이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원인이 친구인 유현에 대한 질투에 있었다. 친구의 가문과 능력, 혼인에 대해 질투를 하여, 친구를 죽이려 하고 친구의 아내를 모해하는 것이다. 사모하던 여인을 빼어간, 즉 그녀의 애인을 질투하는 전형적인 삼각구도가 생겼으며, 그 사랑이 깨지자 실망하고, 분노와 공격성을 분출하는 과정을 보였다. 자객을 동원하여 그녀의 애인 즉 자신의 친구를 죽이려고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그녀를 모해했지만 친구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는 현명함을 지녔다. 단약과 궁녀를 동원하여 임금을 혼미하게 해보기도 했지만 이것도 실패하여 결국에는 자신만 몰락하게 된다. 유배 가서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의 덕행이 부각된다.

이렇게 질투하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질투에 얽힌 미묘한 심리 즉 분노와 복수심, 대항심, 선망 등을 묘사하고 인간의 본성을 표현해 내어 이에 대한 성찰을 유도했다. 또한 남성인 악인이 질투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서사와 인물, 공간이 공적(公的)으로 확장되고 여러 가지 흥미요소들이 만들어져 작품의 재미를 더하였다.

참고문헌

- 김문희·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7쪽.
- 김문희,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의 웃음의 서사미학」,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167~204쪽.
- 송민숙, 「<바자제>, <호텔로>, <카르멘>에 나타난 질투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86,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131~153쪽.
- 송혜란,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65~192쪽.
- 유기환, 「<사랑의 한 페이지>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45,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12, 229~251쪽.
-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 41, 대한중국학회, 2012, 53~80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89~419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 158, 2011, 245~274쪽.
- 정혜경, 「투기 문화의 생산과 유통 채널, 한글장편소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231~268쪽.
-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59~398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애욕추구형 악인의 삼각형의 욕망 구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387~418쪽.
- 한길연, 「영웅소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14, 479~508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96쪽.
- 홍정표, 「'질투'에 관해서 - 정념의 기호학」, 『불어불문학연구』 39, 한국불어불문학

회, 1999, 263~289쪽.

홍정표, 『정념기호학-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187~246쪽.

ABSTRACT

A study on 'Seol-Gang', a jealous male villain in <JoSsiSamDaeRok>

Jeung, Sun-hee

This paper examined and explored the trend and the meaning contained in it in <JoSsiSamDaeRok>, noting that Seol-Gang, a representative figure for "male villain" of <JoSsiSamDaeRok> which is one of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he committes evil because of the feeling of jealousy.

<JoSsiSamDaeRok> is one of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believed to have been created around the 18th century, featuring the stories of the children of the twin brothers, Jo Moo and Jo Seong.

The person who commits the most persistent and heinous misdeeds in this work is Seol-Gang, who is jealous of his friend, Yoo-Hyun, the son of Jo Seong. He is jealous of his friend's family, ability and marriage, and tries to kill his friend and plots to do harm to the friend's wife. However, the plan does not go as planned, and he just collapses, being punished and repented, and in the process, his friend's virtues are highlighted.

By setting up such a jealous character, this novel describes the subtle psychology of jealousy, the emotion that ordinary people can feel, and expresses human nature to induce reflection on it. In addition, by setting the male villain as a jealous person, the narratives, characters, and spaces are extended to those outside the family and various interesting elements are created to add to the fun of the work.

Key Words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 <JoSsiSamDaeRok>, Jealousy, Emotion, Male villain

논문투고일 : 2020.04.22
심사완료일 : 2020.05.13
게재확정일 : 2020.05.17